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3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8지구 - 운정 성당



설립 2004년 2월 19일 전화 사무실 031-949-9114-5 주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법판길 72

제1독서 예레 38,4-6.8-10

화답송 시편 40(39),2ㄱ-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히브 12,1-4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



이한신 사도 요한 신부
호평동 부주임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던 성경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고 시메온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2,34-35)

시메온의 외침, 세상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불이 아직 타오르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맞서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대목들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평화의 개념이 흔들립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만을 평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의아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평화, 나 자신만의 편안함, 나 자신만의 안위, 나 자신만의 안정은 평화가 아닌 개인 이기주의에 더욱 가깝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실현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공동체, 정의와 사랑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불이 되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불, 곧 예수님의 가치와 가르침, 그 계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예수님 이외의 것들과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생각들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한 평화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불 속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왔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견디어 내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

메추라기 마을 패망기



깊은 산속에서 고명하신 스님 한분이 돌아가셨다.
 스님이 저승에 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지은 너의 공덕에 따라서 메추리들의 우두머리로 환생시키겠다.”
 “우두머리가 되자면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물론이지. 네가 인간 세상에서 보고 얻은 지혜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주마. 그걸로 메추리들을 이끌어 나가거라.”
 이리하여 스님은 메추리들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
 그리곤 어른 메추리가 되자 메추리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어느 해, 메추리 마을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메추리들을 잡아가는 사냥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사냥꾼은 메추리 우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냈다. 친구가 부르는가 싶어서 메추리들이 나가면 어김없이 그물이 날아와서 몽땅 잡아가는 것이었다.
 우두머리 메추리는 모든 메추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한 가지 방법을 일러 주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면 하나, 둘, 셋 하고 일제히 날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물을 쓴 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제각기 아래로 빠져 도망치거라. 알았느냐?”
 “넛.”



다음 날도 사냥꾼은 여느 날처럼 찾아와서 메추리들의 친구 소리를 흉내 냈다. 메추리들이 모였다. 소나무 뒤에 숨어 있던 사냥꾼이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메추리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일제히 그물을 쓰고 날아서 나뭇가지에 앉았다. 통쾌한 탈출이었다. 사냥꾼은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사냥꾼은 중얼거렸다.
 ‘그렇군. 메추리들이 사이좋을 땀 안 되겠어. 저희들끼리 싸워서 사이가 나쁠 때 잡아야지.’
 사냥꾼은 살며시 메추리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뿌려 놓았다.

“얘, 그건 내가 먼저 찾은 거야.”
 “뭐라고? 내가 먼저 봤어.”

두 마리의 메추리가 싸움을 시작하였다. 싸움은 점점 커졌다. 끝내는 두 패로 갈라졌다. 숨어서 이것을 보고 있던 사냥꾼은 싱긋 웃었다. 재빨리 그물을 던졌다. 메추리들은 싸움을 하고 있던 참이라 힘을 합칠 수가 없었다.

제각기 흩어져서 달아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물코에 목이 걸리거나 날개가 걸려서 모두 잡히고 말았다. 우두머리 메추리는 탄식을 하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세상 것들은 왜 이다지도 어리석단 말인가. 그까짓 먹을 것 조금 가지고 하는 유혹에 번번히 넘어가고 말다니……애석한지고, 애석한지고.’ ❀



시상식: 8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경당(5층)

최우수

☞ 식전기도에 담긴 작은 각오에 대해 _ 백석동 성당 / 김나현 루치아

우수

☞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됩시다 _ 덕소 성당 / 강민아 크레센시아

☞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_ 가좌동 성당 / 김아름 소화데레사

장려

☞ 나의 걸음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 _ 화정동 성당 / 이애리 루시아

☞ 다시 당신 곁으로 _ 능곡 성당 / 박진주 베로니카

☞ 하늘에 보내는 편지 _ 정발산 성당 / 안송이 효주아녜스

가작

☞ 하느님의 선택 _ 화정동 성당 / 강수연 안젤라

☞ 하늘이 예뻐 _ 신곡동 성당 / 강미선 카타리나

☞ 내가 가고 싶은 신앙길 _ 주엽동 성당 / 오상아 클라우디아

☞ 나의 친구가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_ 화정동 성당 / 김수연 카타리나

☞ 나의 믿음 _ 교하성당 / 김나윤 요안나

주최 | 천주교의정부교구

주관 | 천주교의정부교구 홍보국

교주의 신격화

신흥 유사종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교주)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6.1. 교주는 특별한 사람

첫째 유형은 교주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는다거나, 하느님의 대전에 갔다 왔다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죄에 물든 피를 빼내고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주셨다(피가름)거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었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2. 재림 예수

다른 유형은 교주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한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표현들, '황금 등잔 사이에서 있는 자, 하느님의 아들, 쌍날칼을 가진 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 승리하는 이(이긴 자), 어린 양, 하느님의 인장을 지닌 자, 흰 말을 탄 이, 쇠 지팡이를 지닌 자, 동방의 의인'을 교주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은 '한국인 누구'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6.3. 교주 신격화와 그 이유

교주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신격화 - 예수님과 동급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아니, 이러한 신격화의 더 깊은 배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실패한 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새로운 구원자-자신들의 교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6.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2-23)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다. 주일마다 고백하듯이,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곧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위해 수난하시고 피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속이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쭙었다.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마태 24,3-5; 참조 마르 13,4-6; 루카 21,7-8)

이러한 유혹자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들을 이기는 힘은 기도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



“ 신곡2동 라움 청소년부의 여름캠프 ”

라움 청소년부는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시편 98:4)라는 주제성구 안에서 2박3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비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도 덕분인지 맑은 날씨에서 모두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었던 둘째날 밤의 캠프파이어와 함께한 포크댄스는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라움 친구들이 이번 여름캠프의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앞으로로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라움 청소년부 사랑합니다~!

♥♥♥ 상상도 못한 즐거움!!



신곡2동성당 라움청소년부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시편98:4)
일시 | 2019.7/26(금)~7/28(일)
장소 | 화양동 관광동원(충북 괴산군) 문의 | 임 로사베네리니 ☎ 010-5815-5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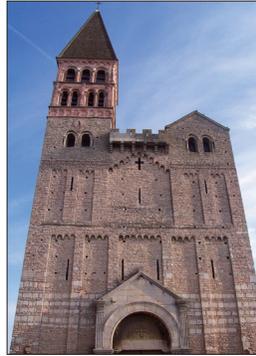
로마네스크와 석조 볼트 천장 롬바르디아 건축

강한수 가롤로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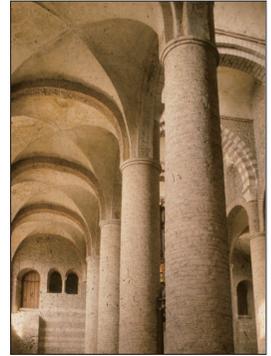
지난 회에 웨스크윅과 이스트엔드의 분화 및 네이브의 확장으로 로마네스크 시대가 한층 가까워졌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네스크 성당이 지향하는 수평과 수직의 분화와 확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당의 기둥 및 벽체와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천장의 처리였습니다. 로마제국의 건축과 비잔틴 건축은 '석조 곡면 천장'을 선호한 반면 그리스도교 건축과 서유럽의 건축은 '목조 평면 천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전통이 초기 로마네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이어져서 각각 유럽 남부 로마네스크와 북부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유기성으로 볼 때 기둥과 천장이 이질적 재료일 경우보다는 동일한 재료일 경우에 더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목조 평면 천장이 석조 곡면 천장으로 바뀌어 가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단절된 로마와 공간적으로 단절된 비잔틴의 석조 기술이 어떻게 로마네스크 시대에까지 전달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롬바르디아 건축'입니다. 롬바르디아 왕국은 게르만족인 랑고바르드족이 6세기 알프스 이남의 북이탈리아를 점령하여 세운 나라로, 그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로마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로마 교황은 카롤링거 왕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피핀에 이은 카롤루스 대제의 공격으로 롬바르디아 왕국은 8세기에 프랑크 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롬바르디아 건축은 롬바르디아 왕국의 건축을 말하는데, 이후 왕국은 사라졌지만 건축적으로 높은 수준의 롬바르디아의 장인들은 석조 볼트(vault, 반원통형의

곡면구조체) 천장과 롬바르디아 밴드(band, 띠) 등에서 독창성을 드러내며 서유럽에 그들만의 조적술을 전파하였습니다.



롬바르디아 건축의 영향을 받은 생필리베르 수도원(11세기, 투르누, 프랑스)



생필리베르 수도원 성당의 석조 볼트 천장

이렇게 롬바르디아 건축은 로마제국 이후 중세에 이르는 건축적 공백을 메우며, 로마와 비잔틴의 석조 볼트 천장의 시공술을 보존하고 있었고, 이것이 초기 로마네스크의 중요한 건축적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카롤루스 대제의 롬바르디아 점령이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롬바르디아의 건축술이 프랑크 왕국의 전역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이 빠르게 그리스도교화 되면서 로마의 교황들은 각 지역에 많은 대성당과 수도원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파견된 건축기술자들 역시 롬바르디아의 석공 장인 집단이었습니다. 지역의 주교좌 성당이 교황이 보낸 장인 집단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교황권이 지역 주교의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직 석조 볼트 천장이 나타나지 않는 독일 북부의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들을 보면, 이 지역은 롬바르디아 건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결국 교황권과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성당 건축은 교회와 국가의 영향 아래 조금씩 성장하여 나아갔습니다. 🎯



교구장 동 정

8월	19(월)	10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부제,신학생 전체 야유회 -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20(화)	16시	부제,신학생 전체 연수 중 강의 -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교구 소식

생태영성학교

현재 생태 위기를 바라보며, 생태적 회개와 바른 생활로 이끄는 이론 6회, 탐방 2회로 구성된 교육

이론 8/26(월)~10/7(월) 19:30	장소 신양교육원
탐방 9/7(토), 10/12(토) 오전 10시	비용 6만 원(강의별수강가능: 이론 1만 원, 탐방 2만 원)
마감 8/23(금)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1~2

2019년 청년전례학교(보수과정) 안내

교육내용 전례 활용에 필요한 스피치/성가/복사 교육(<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일시 9/7(토)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신양교육원
접수 7/12(금)~8/24(토)	대상 이전(2012~2019년) 청년전례학교 기본과정을 수료한 청년
비용 1인 2만 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제18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일시 10/18(금) 19시~20(주일) 17시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순례자의 얼굴 - 내가 바라본 평화 - 나의 이웃은?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 보내실 때 봉단,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고전읽기

강사 최대한 신부	일정 9/6(금)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읽기
시간 20:00~21:30	10/11(금) 괴테의 '파우스트' 읽기
장소 신양교육원(의정부교구청 內)	11/1(금) '괴테와의 대화' 읽기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6~7	회비 1회당 1만 원 /3회 전체신청 2만 원(당일 현장 접수)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7월말 기준)

전월 잔액					1,576,503,401원
7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511,440,000원	156,369,043원	0원	6,100,000원	673,909,043원
비고	이기현 주교님: 15,000,000원 재속프란치스코회: 1,000,000원	박 카타리나: 500,000,000원 익명: 100,000,000원	월말누적잔액		2,250,412,444원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밤기도회

일시: 8/21(수) 19:30~21:40

강사: 유병수 멜키울(인천교구 전회장)

장소: 의정부1동성당 /문의:010-3790-0496

예수마음 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피정: 1박2일(11/2~3),

4박5일(10/16~20), 8박9일(10/2~10)

이나시오 영신수련: 2박3일(10/18~20),

4박5일(10/2~6) /에니어그램 기본과정:

(10/25~27), (11/29~12/1)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및문의: 031-946-2337/8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능함)

일반: 9/7~8, 9/16~18, 10/17~19

제주전체성지순례(주차도포함): 9/1~4,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9/21(토) 11시~9/22(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접수는 선착순이며, 사전접수지만 참석가능)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

과 안수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하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배영길 신부

일시/장소: 8/21(수) 13:30~16:3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9/20(금)~23(월), 10/3(목)~6(일), 11/8(금)~11(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분원)

장소: 성도미니교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가정선교회<부부나들이 피정>

주님 사랑 안에서 듣고, 깨닫고, 쉬고, 힐링되어가는 프로그램

일시: 10/19(토) 14시~20(일) 17시

장소: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신한 131-020-141399 천주교서를 대교구(입금 후 연락요)

찬미 : 고영민 단장, 손현희

준비: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상담)

일시: 8/19(월)13시~16:30(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은사를 통한 치유평정 교구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8/23)

주제: 제 1주 은사쇄신과 성장

강사: 신효원 프란치스코(전국협의회 부회장)

문의: 교구성령기도회010-8729-0025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둥 - 관상과 성찰 /최준열 신부

일시: 8/19(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 VI /김용수 신부

일시/장소: 8/23(금) 10:00~13:00/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일시: 8/28~30, 9/1~4, 9/18~20, 9/22~25, 9/27~29, 10/3~6 /문의: 064-796-9181

예수의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영성미사: 미사및강의-문호영신부

일시, 장소: 매월4째주(토) 8/24 /13시(고해성사) 14시(미사및성시간/명동가톨릭회관 7층/가톨릭신자)

문의: 032-933-7237,4825



교육 · 모집 ▶▶

민족화해센터 관리직 모집

근무시간 주40시간(탄력적 근무 /업무특성 상 주,야간 주말근무 있음)

모집 규정 민족화해센터(www.pu2046.kr)

공지사항 참고

제출기한 8/20(주일)까지

아담맑은연못성당 관리직 모집

자격: 세례 3년 이상, 65세미만 남녀

서류: 교적,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신부추천서

마감: 총원시까지(면접-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접수: 우편 및 방문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시스피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종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주1회)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17(화)~30(월)

모집지역: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분도문화영성학교 영성 특강-가을

일시: 9/7(토) 10:30~16:30

주제: 토머스 머튼의 영성 2

강사: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장소: 분도빌딩 5층 봉헌회관(서울 장충동)

수강료: 1만 원(점심 포함), 선착순 50명

신청: 분도출판사 02-2266-7152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수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5.2.28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농어촌전형

원서접수: 9/6(금)~10(화) 인터넷접수

교리시험/면접: 11/8(금)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한마음수련원 직원모집

근무직책: 팀장
 담당업무: 사무, 행정, 회계, 예/계약, 고객응대 등
 서류마감: 8/23(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확인

2019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분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일시: 9/22(주일)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문의: 031-840-0742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진상 교육관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9/5~12/19 매주(목) 10시
 독서와 마음나누기 집단상담 (책 제목-내 안의 어린아이): 9/3~10/15 매주(화) 10시~13시
 전문심리상담: 가족, 개인, 부부,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융합조형,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기자(취재, 편집) /구분: 신입, 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문의: 02-778-7679
 홈페이지 www.catholicnews.org 참조

행복한책읽기 입문모집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의 성숙
 언제: 8/22~12/12(목), 13:40~16:00
 회비: 10회, 12만 원(교재 별도)
 장소: 의정부 교구청 지하 1층 대강의실
 문의: 장그라시아 수녀(010-9016-7003)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19년 2학기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마감: 9/30(월)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일산여정성서교육관 2019년 2학기 성경공부

8/26(월) 시서와 지혜서, 8/29(목) 바오로 서간, 8/30(금) 마태오복음서, 10시~12시
 문의: 010-4338-400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전담연구원) 채용

분야: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 전담 연구원 1명(계약직) /제출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마감: 8/23(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영성강의

주제: 생태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강사: 백종연 바오로 신부(서울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일시: 9/1(일) 13시~14:30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토당동)
 010-2738-6795 김흥춘 사도요한

안내 · 기타 ▶▶

노인공동가정생활이용자접수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대상: 치매가 없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
 문의: 02-381-7510, 010-5235-1130
 ※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

착한목자수녀들과 함께 하는 성지순례
 일시: 8/31(토), 9/28(토)
 대상: 35세 미만 청년
 문의: 010-2892-1006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2019, 2020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상담: 아라마크 010-3362-5401

가톨릭여행사 (문의 : 02-319-2533)

9/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17 동유럽 발칸 5개국 12일 38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 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 원
 10/15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380만 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9/6 이스라엘 9일(추석연휴) 35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코로나여행사)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17, 10/4 이스라엘, 요르단10일 299만 원 /289만 원
 9/11, 10/7 이태리일주9일 299만 원 /279만 원
 10/6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 원
 11/1 홍콩 마카오4일 129만 원

56차 이태리 순례

일시: 11/8~11/20 (12박 13일), 44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예수회	8/24(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예수고난회	8/30~9/1 성소자야유회	청주예수고난봉쇄수녀원	010-6804-4904
	살레시오회	8/24(토)~25(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혼인성사(4)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9)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혼이 큰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돌아온 싱글(single)’이라는 의미의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혼 경력의 그 사람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거나, 도덕적 평가의 요소로 사용되기도 않습니다. 물론, 이혼 경력으로 누군가의 인간적 품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이혼 경력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교회 안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혼인성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거스르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도 큰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혼인성사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고유하고, 고귀한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것은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그리고 “출산”입니다.

“단일성과 불가해소성과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에 필수적입니다. 일부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과 양립할 수 없고,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가르는 것이며, 출산 거부는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에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664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이러한 혼인성사의 목적과 가치들은 오늘날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 분위기에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려는 의견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혼인의 가치들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낡은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를 불가분(不可分)의 내조자로 세우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인간이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없으며, 사랑의 의미와 가치 또한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은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은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자기증여”의 행위이며, 이를 통해 주어지는 “출산”이라는 선물 또한 당사자들의 선택이 아닌, 생명에 대한 거룩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가치는 혼인 당사자 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들에 의해서조차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밝힌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